

2019년 4월 16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종목 장세 속 약보합 마감

금융주, 에너지, 반도체 업종 부진 Vs.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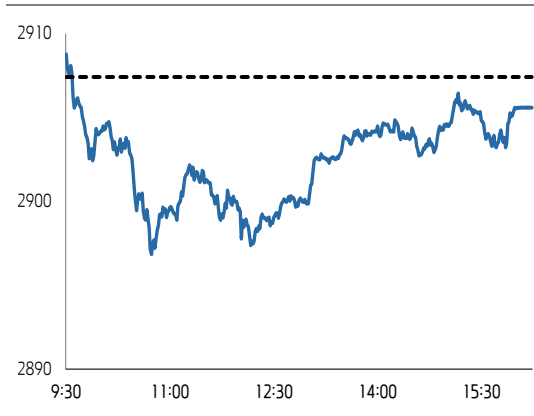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일부 금융주가 부진한 매출을 발표한 여파로 하락 출발.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가운데 나온 부진한 매출 추이는 투자심리 위축 요인.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2 분기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반발 매수세 유입 요인(다우 -0.10%, 나스닥 -0.10%, S&P500 -0.06%, 러셀 2000 -0.36%)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지난 4 월 12 일 기준 S&P500 기업들의 1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3% 줄어든 것이라고 발표. 이는 지난 연말(YoY +3.5%) 보다 7.8%p 하향 조정된 수준.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에너지(YoY -22.9%), 소재(YoY -11.7%)를 비롯해 IT(YoY -10.6%), 경기소비재(YoY -6.3%) 등 대부분 업종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 더불어 여기에 2 분기 S&P500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0.4%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2 분기 영업이익은 주로 IT(YoY -9.3%) 위주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과 함께 향후 전망에 주목하고 있음. 지난 금요일 JP 모건의 경우 매출이 증가하고, 급격한 경기 침체 징조가 없어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5% 가까이 급등. 그러나 웰스파고의 경우는 향후 이자수익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하락.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매출 둔화 소식이 전해지며 부진. 주식시장은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실적발표에 따라 변화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개별 업종 관련 이슈에 따라 등락이 결정되는 등 여전히 '종목 장세' 가 이어지고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242.88	+0.42	홍콩항셱	29,810.72	-0.33
KOSDAQ		766.75	-0.14	영국	7,436.87	-0.00
DOW		26,384.77	-0.10	독일	12,020.28	+0.17
NASDAQ		7,976.01	-0.10	프랑스	5,508.73	+0.11
S&P 500		2,905.58	-0.06	스페인	9,497.10	+0.30
상하이종합		3,177.79	-0.34	그리스	773.51	+1.02
일본		22,169.11	+1.37	이탈리아	21,892.42	+0.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부진 Vs. 헬스케어 업종 강세

골드만삭스(-3.82%)는 부진한 매출 발표 여파로 하락 했다. 씨티그룹(-0.06%)은 트레이딩 매출 감소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하락 했다. JP모건(-1.14%), BOA(-1.09%) 등 금융주도 동반 하락 했다. 중소형 금융주의 낙폭이 더 컸다(중소형 금융섹터 ETF -1.66%). 유나이티드 헬스(+3.13%), CVS헬스(+2.67%) 등 헬스케어 업종은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월마트(+0.86%), 코스트코(+1.81%), 타겟(+1.55%) 등 소매 유통 업체들은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상승 했다. 지난 금요일 세브론(+0.32%)이 아나다르코(+0.78%)를 인수한다고 발표 후 EOG리소스(-2.83%), 코노코필립스(-1.53%) 등 세일 오일 업체들이 급등 했으나,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폐기물 관리 회사인 Waste Management(+2.43%)는 Advanced Disposal Services(+17.87%)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 했다. 디즈니(+1.52%)는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 우위 가능성과 스타워즈 시리즈 12월 개봉 등을 이유로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금요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넷플릭스(-0.65%)는 이틀 연속 하락 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2.04%)는 셀젠(+1.02%) 인수에 대한 주주들의 찬성이 75%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17%	대형 가치주 ETF(IVE)	-0.11%
에너지섹터 ETF(OIH)	-0.33%	중형 가치주 ETF(IWS)	-0.36%
소매업체 ETF(XRT)	+0.11%	소형 가치주 ETF(IWN)	-0.52%
금융섹터 ETF(XLF)	-0.63%	대형 성장주 ETF(VUG)	-0.03%
기술섹터 ETF(XLK)	-0.04%	중형 성장주 ETF(IWP)	-0.0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24%	소형 성장주 ETF(IWO)	-0.21%
인터넷업체 ETF(FDN)	-0.08%	배당주 ETF(DVY)	-0.43%
리츠업체 ETF(XLRE)	-0.6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9%
주택건설업체 ETF(XHB)	+0.1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0%
바이오섹터 ETF(IBB)	-0.50%	미국 국채 ETF(IEF)	+0.13%
헬스케어 ETF(XLV)	+0.40%	하이일드 ETF(JNK)	-0.11%
곡물 ETF(DBA)	-0.18%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0.72%	Long/short ETF(BTAL)	+0.6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6.76	-0.57%	-1.22%	+1.06%
소재	362.09	-0.46%	-0.03%	+4.08%
산업재	647.67	-0.52%	+0.22%	+2.85%
경기소비재	938.16	+0.21%	+0.45%	+6.14%
필수소비재	583.78	+0.69%	+1.26%	+2.66%
헬스케어	1,042.89	+0.34%	-2.09%	-1.97%
금융	447.81	-0.63%	+1.30%	+0.16%
IT	1,347.12	-0.04%	+0.71%	+4.68%
커뮤니케이션	165.14	+0.18%	+1.89%	+4.99%
유틸리티	295.30	0.00%	+0.94%	+0.37%
부동산	225.79	-0.60%	+0.20%	+3.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지속된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9% MSCI 신흥 지수 ETF 도 0.525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도(-923 계약) 여파로 0.50pt 하락한 290.2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4.1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본격화된 실적 시즌 영향으로 금융주의 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별 업종 이슈에 따라 에너지 업종이 부진한 반면, 헬스케어, 소비재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종목장세가 이어진 점이 특징이었다. 전일 중국 증시는 장 초반 2% 가까이 급등 했으나, 경기 회복에 따른 부양책 축소 및 유동성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이렇듯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야기시킬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 증시 또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상승폭을 확대할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순매수는 일부 종목에 국한된 매수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결국 매수세의 확산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증시가 '종목 장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표 개선

4 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전월(3.7)이나 예상치(6.8) 보다 개선된 10.1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3.0→7.5), 출하지수(7.7→8.6)은 개선된 반면, 고용지수(13.8→11.9)는 둔화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러시아 증산 발언으로 하락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OPEC 과 함께 미국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을 위해 증산을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이후 하락 했다. 러시아는 만약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40 달러까지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 했다. 6 월 OPEC 정례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의 감산 연장 반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제유가의 상승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높아졌다.

달러화는 뉴욕주 제조업지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한편, 므누신 재무장관의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임박했다는 발언이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인플레이 압력 약화에 따른 금리 동결 언급 등도 있었으나, 외환시장 변화는 제한 되었다.

국채금리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2020 년까지 금리는 동결될 것” 이라고 전망하자 하락했다. 더불어 IMF 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그러나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가 예상보다 개선된 결과를 내놓자 낙폭은 제한되었다. 더불어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협상이 결론에 다다랐다고 주장한 점도 낙폭 제한 요인이었다.

금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유입되며 소폭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 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8% 하락 했으나, 철근은 0.18%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3.40	-0.77	-1.55	Dollar Index	96.942	-0.03	-0.11
브렌트유	71.18	-0.52	+0.11	EUR/USD	1.1302	+0.03	+0.35
금	1,291.30	-0.30	-0.81	USD/JPY	112.03	+0.01	+0.49
은	14.975	+0.08	-1.58	GBP/USD	1.3093	+0.15	+0.25
알루미늄	1,865.00	+0.11	-0.32	USD/CHF	1.0042	+0.18	+0.53
전기동	6,480.00	-0.06	+0.08	AUD/USD	0.7172	-0.01	+0.63
아연	2,900.00	-0.96	-0.21	USD/CAD	1.3370	+0.35	+0.42
옥수수	371.50	+0.54	+0.81	USD/BRL	3.8666	-0.39	+0.42
밀	463.25	-1.12	-1.17	USD/CNH	6.7086	-0.00	-0.13
대두	912.50	+0.41	+0.08	USD/KRW	1133.10	-0.55	-1.01
커피	93.90	+1.02	-1.68	USD/KRW NDF1M	1134.18	+0.04	-0.6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554	-1.08	+3.21	스페인	1.080	+3.30	-0.30
한국	1.925	+4.00	+5.00	포르투갈	1.191	+2.40	-3.10
일본	-0.025	+3.10	+2.00	그리스	3.274	-1.00	-19.80
독일	0.056	+0.10	+4.90	이탈리아	2.577	+3.70	+9.30